

# 歲月이 藥이라건만

언제나 빙긋이 웃으며 재즈를 즐기던 모습이



- In the new york -

Dong-Ju was from Korea,

He was such a nice person, considerate, funny and warmhearted.  
**May him rest in peace in Heaven.**

The World froze at this moment.

D.J' s friend Huabei Liu

Feb. 27. 2003

Edited by D.J' s Father

( 2005년 중추절 )

## *To everyone who remembers Dong-ju (DJ)*



DJ had lived a short life,  
but in his life, he loved his friends so much  
-maybe it's because he was the only son -  
and felt so proud of working for Samsung Everland  
and studying at Columbia University.

A long time has passed since DJ left us,  
but I now create a remembrance book of DJ.  
I couldn't just make my son's unaccomplished dreams fade away  
and also didn't want to forget your kindness given to him.

While making the remembrance book,  
I tried hard to make even a word or a photo  
that you've sent since DJ passed away  
be contained in the book.

I believe that DJ will send you his beautiful smile from heaven  
if you keep this book as a reminder of the time spent with DJ  
and open it sometimes in your busy and restless lives.

August in 2005

DJ's father in Jinju



# 제 1 장 동주의 삶

## 1. 짧은 생애



생후 9개월 때 동주와 누나

### 가. 출생과 어린 시절

▶ 1972년 11월 23. 새벽 1시 출생(대구 신암 아파트에서 옆집 아줌마가 조산)

▶ 1973. 7월 - 가성 코레라로 입원, 김집 소아과 동희도 토하고 아빠도 이질에 걸리고 그해 여름은 싫다. 동주는 생후 10개월부터 혼자 걷기 시작했다. 첫돌도 안 된 놈이 2미터 높이나 되는 장독대에 혼자 기어 올라가서는 어른들 가슴을 철렁하게 했다.

▶ 1974년 1월 - 서울 노량진 전세방에서 연탄가스 중독 등의 동주 연탄가스 중독 - 용산 철도병원으로 엄마 혼자서 업고 안고 뛰었다. 아दा 이때 동주의 왼쪽 청신경이 고장

난 듯 정아는 방이 좁아 면목 동 외갓집에 있었고 방이 워낙 작아 8자 장롱이 들어가질 않아 독수를 시켜 잘라 내었지 이곳 생활이 반년의 세월이지만 일생 잊지 못할 고생을 한 것 같다.

▶ 사당 동 무허가 주택으로 이사(8평) (1974. 6. - 12. 70만원)

- 플라스틱 물통 (숯 모래 자갈 모래)을 이용 정수하여 펌프 물을 먹었고, 구멍가게를 했는데 담배는 아빠가, 과자는 아이들이...늘 밀진 장사
- 이발관에서 두 돌도 안지난 동주가 머리를 깎지 않으려고 양발로 버티고 서서...
- 심원짜리 동전을 택시 운전수에게 주면서 차 태워 달라고 억지를 부려 운전수가 웃으며 동네를 한바퀴 돌았다.
- 다른 아이가 제 누나와 닮다고 부삼을 들고 나가 그놈의 뒤통수를 때리고.

▶ 영동 아파트 (1974년 12월 - 1976년 6월)

- 13평 서민 임대 아파트 - 임대 보증금 7만원으로 입주  
방 두 칸 부엌 화장실 겸 세탁실 - 수도물도 나오고 아이들 방도 있고 행복했다, 연탄 부엌이었다.
- 일요일이면 갈비도 구워먹고, 동주란 놈 미간에 흉터도 이때 생겼다  
아이들은 커텐 자락을 잡고 타잔 흥내도 내고... 배란다 난간을 잡은 동주 놈은 엄마 간을 공알만 하게 만들고.

- ▶ 장위동 - 집을 증축한(대지 24-42,건평 14-24)후 안쪽 방에서 세 놈이 잠을 자는데 아침에 깨우려 가보니 장롱 문짝이 넘어져 있었다.(노량진에서 잘라 낸 바로 그 장롱이다) 한 놈도 다치진 않았고 다들 정신없이 자고 있었지... 땅을 사들여 집을 넓히고 세희가 막 태어났을 때니까 아마 1977년 7월 어느 날인가 보다.

## 동주가 남긴 기록

어렸을 때의 일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단칸방에서 6식구가 다같이 자다가 장롱이 쓰러지는 바람에 일가족이 다같이 질식사 할 뻔했던 일, 셋방을 살면서 주인집에 눈치를 보면서 맘껏 뛰어놀지도 못했던 일 등 그다지 아름답지 못한 기억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 ▶ 대구 삼덕동 한옥집

- 1979년 2월 - 동주 일곱 살에 태권도 유아반에서 수련1년(78년부터) 초단을 받음
  - 초단 심사를 산격동 경북 체육관에서 받았는데 날씨가 무척 추웠다
- 일요일이라 아빠가 데리고 갔었지 어린 것이 감기증이라 무척이나 힘이 들어 보였다.  
아마 그 것이 동주에게 어른스런 참을성을 키워 준 것 같다.



맨 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 (수련생 중 가장 어렸다)

## 나. 1979년 3월 동주 경북 사대 부국에 입학



초등 1학년 때

▶ 1980년 2월 - 아버지 경북 교육위원회  
관리국장으로 발령

초등학교 입학이후부터 동주는 놀러 다니기  
바빠 프락서니를 볼 수가 없었다.  
대구 백화점에서 에스컬레이트를 타는 등  
시내를 안 다닌 곳 없이 돌아 다녔다.

▶ 다시 서울로 - 응암동 국립장 여관 안채 - 서울 역촌 국교로 전학

이 무렵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동주에게 꾸중 딱 한번, 초등학교 3학년 말 겨울 방학 때쯤인가 아버지와 함께 서울에서 삼덕동 집 문제로 대구엘 들렀지, 그 때 동주의 장난감 중 홍콩에서 사온 달리는 기차 세트를 대구 있을 때 친구에게 빌려 줬다가 온 김에 찾아 가자고 했지, 그런데 그 친구가 돌려주지를 않아 못 찾았다고 해서 네 물건도 못 챙기느냐고 하면서 아버지 앞에서 사라지라고 꾸중을 했더니 정말로 역구내를 빠져나가 어디론가 가버렸더구나. 기차 시간은 다 되어 가는데... 아버지는 동대구역 밖을 정신없이 찾아 헤메다 난간에 기대서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서 있는 너를 발견하고는 왜 이러구 있냐고 했더니 아빠가 가라고 해서... 이 놈은 아버지 딸이라면 곧이곧대로 믿어...

훗날 그 때 이야기를 물으니 나는 이제! 엄마 아빠도 없는 고아가 되는구나 싶으니 그렇게 눈물이 나더란다. 짜식!

▶ 역촌동 국민 주택 (1982년 6월 - 1983년 6월)

- 1982년 여름 끝 놈 들만 데리고 여행 - **한계령을 넘어 설악산 강릉**으로
- 1983년 어린이날 - 할아버지 내의를 모시고 동주 세희 우리부부 철원 폭포 관광, 할아버지 약초를 베다가 손을 다치시다, 중공기 불시착 사건으로 야단법석을 부리고,
- 1984년 7월 가족 여섯이서 **거제도, 한려수도 여행** - 43살 여고1, 중2, 초6, 초1 처음으로 총무김밥을 한산도 베타기 전에 먹어보고, 총무호텔에서는 전복구이도 먹고... 거제에서는 몽돌해수욕장에도 들리고 갯벌어선 갈게도 잡았지.

## 동주가 남긴 기록

어렸을 때부터 근처에 있던 개천가에서 친구들과 고기를 잡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숙제는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가 아침이 되면 학교를 가지 않기 위해 아프다고 엄살을 부리기도 하고 그러던 제가 지금은 공부를 위해 유학까지 온 것을 보고 부모님은 무척 신기해 하십니다. 대구에서 서울로 이사 와서도 고기를 잡으러 버스를 타고 한 시간 이상 걸려 경기도로 가곤했었습니다. 고기를 잡던 주위에 일명 불온뽀라 라는 것이 도처에 널려있었는데 그것을 모아다 학교와 경찰서에 내어서 상과 상품을 받은 적도 많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수업시간이외에는 책 한번 변변히 펴 본적도 없었기에 중학교로 올라와서도 공부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2년 동안은 남들보다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로 선생님들께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도 못 갈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으로 약간은 무식한 방법으로 시작한 공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면서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고 그 재미에 더 공부에 매달렸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마칠 무렵에는 과기로 진학할 것을 심각하게 고려**했을 정도로 공부에 대해 관심과 실력을 가졌었습니다.

## 다. 1985년 은평 중학교, 1988년 충암 고등학교 입학



· 1985년 8월 - 가족 여섯이서 목포에서 배에 차를 싣고 제주도를 갔다가 봉화, 단양으로 여행 봉화에서 옷담을 사가지고 - 서울 오니 다 상했어! 그때 아버지는 44살, 정아 고2, 동희 중3, 동주 중1, 세희 초2

← 제주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던 중

## ▶ 아이들의 추억 응암동 68-10 (1986년 1월 - 1989년 4월)

대지 62평 건평 54평 8900만원-방이 5개 2층 거실과 아래층 식당이 아주 넓었음 아이들 각자에게 처음으로 독방을 줬다.

동주 - 중2년 말 방학

응암 동 교회 옆집에서 동주 생일 →



## 동주가 남긴 기록

제가 어리던 그 당시에 아버지는 교육부(옛 문교부)의 높은 위치에 계셨지만은 월급만으로 6 식구를 끌어 나가기에는 역부족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쯤 처음으로 집을 가졌을 때의 즐거움이란 제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기쁨중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항상 돈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엄격하셨던 분이기에 돈 문제로 식구들과 다투기라도 하는 날이면 불호령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식구들은 돈에 대해서는 별로 애착이 없어 보입니다.

· 1988년 8월 아버지와 서해 덕적도 바다낚시

### ▶ 가족 역사의 중심 응암동 4-41 (1989년 4월 -1998년 9월)

- 1990년 10월 - 고3 공부하던 동주가 한 밤중에 갑자기 배가 아프다기에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갔다. 응급실의 환자 대접은 정말 형편이 없다 - 아침이 되어서야 검사를 했으나 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다?
- 1991년 1월 31일 - 아버지 중앙교육평가원 고사운영부장으로 발령나던 날 동주를 불러 놓고 술을 마시면서 내 신세 한탄을 했다.  
아버지는 정상적인 공부를 못하여 직장에서 이런 대접을 받는다.  
너만은 어떻게 하더라도 네가 하고 싶은 공부는 다 하도록, 아버지가 밑거름이 되겠다. - 동주는 무릎을 꿇고 앉아 열심히 아버지 이야기를 들었다.  
그날 저녁 동주가 끓여주는 라면으로 요기를 하고, 부지지정을 돈독히 했었지...



응암 동 4-41 집 정원

## 라.1991년 3월 - 대학 입학 ( 중앙 대 토목 )

### 대학 입시 때 동주가 남긴 기록

고3으로 올라와서는 마음이 급해졌고 어쩌면 대학에 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용돈을 아껴가며 모아왔던 레코드판을 한꺼번에 처분을 하고 다시 한번 중3때의 기억을 되살리며 공부에 전념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의 공부가 중학교 때와는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웠고 대학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1년이란 시간으로는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절망감은...

그래도 대학이란 곳을 꼭 가보고 싶었기에 그리고 그 당시 우연히 본 신문에 난 한국의 **모 건설회사의 리비아 대수로 공사가 올 칼라로 지면을 장식**했을 때 이미 제가 대학에 가서 무슨 공부를 할 것인가를 정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운명이란 것을 믿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대입 시험이 있던 날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 성적이 되어서 안정권이라고 생각하고 지원한 K대학 시험 하루 전날 입시 소집 일에 눈이 유달리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입시소집에 가면서 같은 대학을 지원한 친구들과 함께 학교로 가서 과마다 다른 모임 장소로 흩어진 후 다시 모여서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갈 때 차비는 제가 내고 올 때는 다른 친구가 내기로 하고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털어서 가는 차비를 냈었는데 입시소집이 끝난 후 그 친구들을 만나지 못한데 있습니다. 차비는 없고 집까지 걸어가려면 최소 3시간은 걸어야 하는 거리였고 눈까지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결국 1시간 정도를 더 기다리다가 그냥 걸어가게 됐는데 집에 도착 한 이후 고열에 시달리다가 두통약 감기약 할 거 없이 다 먹고도 잠을 못 이루다가 밥을 새고 시험을 치러 갔는데 결국은 그동안 고생한 보람도 없이 마지막 시험까지 제대로 치루지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재수를 하라는 부모님과 친구들의 권유에도 당장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저의 성격 탓에 후기 대학 원서를 냈고 합격해서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시작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토록 동주로부터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는 말을** 들어 보질 못 했다.

간혹 일이 잘 못 되는 경우가 있어도 혼자서 극복해 내려고 안간 힘을 쓰는 모습이 가끔 눈에 띄었다. 결코 무엇을 탓하는 일이 없었다. 그런 때 애비는

그저 “그놈 참” 하고는 내 자식이지만 애비도 그 놈의 인성은 배워야겠구나 하고 생각했었지. 대입 1차 발표 날 그놈이 혼자서 한 짓 모두 알고 있지? 그래도 누굴 원망하고 탓 하드나?

달래 주려고 이 애비가 인천으로 데리고 가서 소주에 맥소통을 타서 처음으로 술 마시는 예의도 가르쳤지...2차분할 모집(사실상 1차 보다 더 어려웠음) 중앙 대에.

북한산 등산길에 엄마와 함께

▶ 1992년 3월 대학 1학년을 마치자 **군 지원 입대** (51살, 24살, 대4, 중3)

구파발 부대에 입소시키고 돌아오는데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구만.

어릴 때 한쪽 귀 청신경 이상으로 방위병으로 편성됨

기본 훈련 이수 후 훈련 부대 조교로 남게 되었으나 워낙 힘이 든다기에 국방부에 근무하는

후배(후에 육군 대장으로 3군 사령관 역임)에게 부탁하여 동사무소 방위병으로 근무하게 됨

▶ 가회동사무소에서 방위근무

여기서 직장 생활의 예절을 익힌 것 같다. 집에서 출퇴근을 했는데 하루하루 생활을 무척 즐거워하는 것 같았다.

▶ 1993년 8월 군에서 제대 - (복학까지 6개월간 영어 연수, 운전면허 취득)

1학년 동안에는 중대 친구들과 고3 친구들이 거의 매일 집에 놀러 왔었다.

제대 후에는 고3때 친구들만 놀러오고 대학 친구들은 오지 않았다.

복학 후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단단히 결심 한 듯.

▶ 1994년 3월 대학 복학 (아버지 53살, 26살, 25살, **대2**, 고2)

♥ 7월 1개월간 이 상영이와 함께 유럽 배낭여



♥ 1995년 황 의현이와 함께 전국 여행



## 마. 1997년 1월 삼성 중앙개발 입사

· 액센트 승용차를 사주어 용인까지 출퇴근

### 동주의 대학 졸업 후 진로결정에 대한 회고

대학에서의 마지막 학년을 남겨두고 전공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갈등이란 지금껏 배운 지식이 충분한가에 대한 의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의문의 해답을 직접현장에서 배울 수도 있는 것이고 좀더 학교에 남아 학문으로서 이해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 저 역시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고 많은 친구들이 대학원에 진학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기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공부한 것이 현실에서 실행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배울 것에 대한 확신 또한 생기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삼성 에버랜드(구 중앙개발)에 원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삼성에버랜드에서 필요로 한 인재는 토목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하여 골프장 프로젝트를 진행 시킬 수 있고 나아가 직접 설계에도 참여할 수 있을 인재를 만든다는 것이 취업설명회의 요지였습니다.

### 동주의 삼성 중앙 개발 취업에 대한 회고

삼성은 국내 최대 기업답게 신입사원 교육역시 아주 체계적이고 교육에 참여했던 모든 이들에게 자부심과 뉘가 이루겠다는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룹 교육을 마치고 또한 자사 교육을 마친 후 처음 부서에 배치되었을 때의 떨림과 설레임은, 제가 근무하게 된 부서는 신규개발사업부라는 삼성에버랜드에서 사업 확장이라는 큰 포부를 가지고 만든 부서였습니다. 그중 제가 맡은 임무는 안성 나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던 선임 대리를 보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합숙도 하면서 사람들도 하나둘씩 알아가고 그 일을 진행하면서 또한 우리 부서에서 추진해나가던 골프장디자인 사업을 위해 하루에 몇 시간씩 시간을 내서 그 당시 일본에서 모셔온 골프장 디자인 전문가 옆에서 골프 코스 콘타를 따라 그리는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IMF 이전까지 계속 진행이 되어 1년이 지나서는 안성 나다 퍼블릭 코스의 설계 작업에 직접 참여를 했었습니다.



중앙 개발 재직 중 동주가 완성한 골프장

- ▶ 1997년 8월 8 아버지 교육부 차관 취임 (56살, 29살, 28살, 26살, 대2)
- 10월 동주 용인 인정아파트로 전세 이사 (직장 동료 이 효상과 함께) 아파트를 얻을 때도 그놈 아빠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고집을 세우는 것을 겨우 설득을 시켰다.

- ▶ 1998년 7월 1 아버지 경산대학교 총장 취임



삼성 에버랜드의 추억

- 바. 1998년 7월 말 동주 유학 준비로 회사 퇴직 (57살, 30살, 29살, 27살, 대3)

### 동주의 유학 결정 동기에 대하여 남긴 기록

IMF의 여파는 저의 회사 특히 저의 부서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모든 신규 사업은 중지가 되었고 지금 진행하는 일도 최소의 인원으로 이끌어 나가야만 했습니다. 저는 골프장 클럽하우스에 관한 전권을 이어 받았고 임시 오픈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때번 현장과 사무실을 왕복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임시 오픈을 하던 날 저의 부서는 나다 운영 팀으로 또다시 인원이 분리되어 골프장 현장으로 많은 인원이 옮겨 갔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다시 저의 진로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중요 결정을 해야만 하던 시기에 지식에 대한 확신이 없어 내 주장을 낼 수 없었던 점 학교에서 전혀 배우지 못했던 그리고 전공과는 동 떨어진 일을 하면서 생기는 무력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사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골프장 설계사업 계획을 회사가 완전히 포기**하면서부터 이대로 회사에 남아 조경업무라는 전공과는 무관한 새로운 일을 시작 할 것인가 회사 일을 하면서 느낀 아쉬웠던 점들을 실행에 옮길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졸업 후 대학원 진학과 취직을 사이에 두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으며, 4년 동안 배운 지식이 현실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보고 싶다는 지적 유혹에 부응하고자 한국에서 가장 큰 회사인 삼성에 취직을 하여 전문 기술자로서의 길을 닦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맡은 임무는 Civil Eng.을 전공한 기술자로서 골프 코스를 설계하는데 토목적 지적 자문 과 산이 많은 한국지형특성상 절실히 필요한 사면안정에 관한, 검토 골프 코스 내에 설치

된 저수지의 설계 검토 및 사용될 재료에 대한 결정 등을 주 업무로 했으며 1년 6개월 동안 골프코스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전문 교육도 함께 받았다. 그 결과 안성에 있는 퍼블릭 골프코스에 대한 기초 설계에 참여를 하게 되었다. 참여했던 골프장은 총 3개였으며 그중 5년이 넘도록 여러 법규와 이웃과의 마찰, 자금 문제 등으로 완공을 하지 못하고 있던 골프장을 인수하여 단 2년 만에 한국을 대표하는 골프장 중의 하나로 완공시켰던 일은 나의 자심으로 남아있다.

### Plan for study

하지만 직장에 있는 동안에 겪었던 여러 전문적 지식의 제한과 BS출신 인 자신의 의 사 한계를 느끼며 보다 전문적인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가장 큰 부담이었던 안성 골프장의 완공은 그런 나의 관심을 현실로 옮길 수 있게 해 주는 금전적 그리고 시간적 여유를 가져다주었고 퇴직 후 1년여 동안의 뉴욕에서의 어학연수는 뉴욕과 콜롬비아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게 해주었다. 결과적으로 원하던 콜롬비아 대학 석사과정에 입학하게 되어 1년 반 동안 너무나도 소중한 지식과 사람들을 얻게 되었고, 이제 나아가 진정한 Civil Eng. 에서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단계를 목전에 두고 있다.

▶ 마포 아파트로 이사 1998.10. 1 (응암 동 집 처분)

▶ 1999년 1월 미국 유학 뉴욕 페이스 U 어학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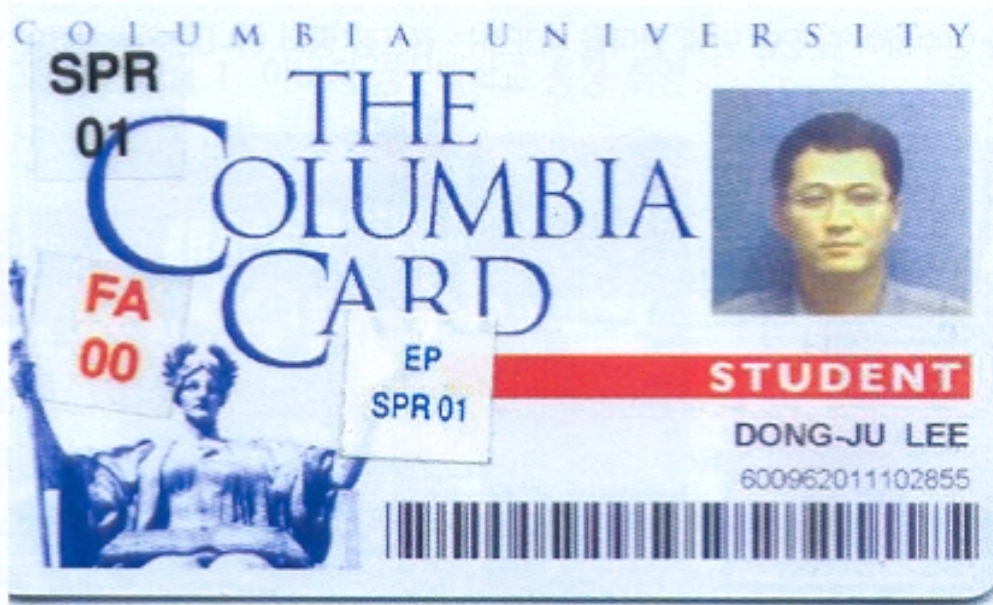
동주가 떠나고 아이들 엄마는 신경이 날카로워 아빠와 싸움이 잦았다.



뉴욕 페이스 대학에서 어학 연수생들과



▶ 1999년 9월 컬럼비아대학원 입학



## 동주의 유학 준비 과정에 대한 기억

회사를 그만두고 시작한 유학준비는 그다지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놓았던 영어 공부를 다시 해야 하고 학교 선택도 해야 하고 추천서 등등 오랜 준비 없이 시작해서 결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년간 어학연수를 하면서 토플, 지알이 시험을 마치고 무사히 몇몇 학교에 합격을 해서 그 중 어학연수를 하면서 지켜보았던 콜롬비아 대학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 2001년 2월 엄마 아빠 미국 이스턴 켄터키 대 방문 후 뉴욕 동주 방문

동주 기숙사에서 3일간 함께 생활, 새우 소금구이도 해먹고 -

호텔에 두고 온 여행 가방을 찾으러 동주가 다시 다녀오고,

미국 공항에서 우리를 전송하던 동주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하다.

한국에 오는 동안 비행기내에서 두고 온 아들이 그렇게 애처러워서...

〈이 놈아 무슨 큰 영화를 누리겠다고 만리 이국땅에서 그 고생이나 그게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냐?〉

그래도 젊어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는데 싶어

하고픈 말을 참았다. 그놈 말은 〈아버지 유학생들 생활은 다 이래요 걱정 하실 것 없어요〉

애비는 속으로 그래! 모든 걸 납처럼,

사. 2001년 5월 결혼 - 서울 교육 문화 회관

리추 위하사 이빙탈 물S 탐S00S ◀



⇒ 결혼 후 대학 기숙사 좁은 방에서 어려운 신혼살림을 한다고  
뉴욕의 이 의석 사무관이 몇 번 나에게 전화를 했다  
그 때 집세라도 좀 보내 줄 걸 하고 지금도 후회를 한다.

▶ 9월 뉴저지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학비를 절약해서 스스로 집을 얻은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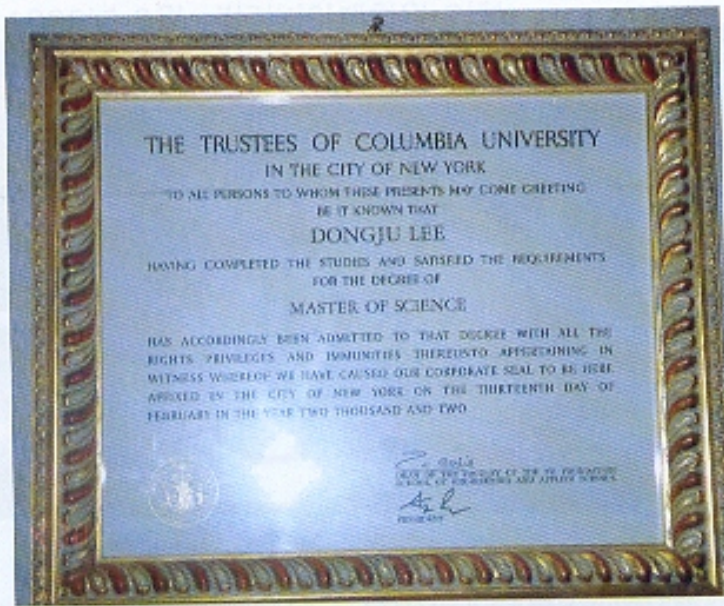
뉴저지 신혼 방



뉴저지 아파트의 입구

· 9월 - 미국에서 소포가 왔다 뜯어보니 뽕 조각이 달린 편지 칼이었다.  
자기가 학부생들 시험지 채점을 하고 학교로부터 받은 몇 백 불 중에서 샀다면서...  
보통은 혜진이를 시키는데, 본인이 직접 보내왔다.

▶ 2002년 2월 컬럼비아 석사학위 취득



같은 무렵 아버지 회갑연  
동주내외는 참석 못함

▶ 2002년 6월 동주 내외와 미국 내 여행 - 나이아가라 - 센츨릴 파크

곧 이어 동주 내외 한국 시골에 와 매실을 같이 따고, 강아지 금동이 장염으로 죽어 그놈이 철든 후 보이지 않던 눈물을 보였다.

8월에 맨하탄 새 아파트로 이사 예정이라며 며느리는 대학원을 마저 마친다며 남고 혼자 출국했음. 그해 여름에 조카들을 위한 간이 풀장 세트를 사왔었고 아버지에게는 도자기 만드는데 필요한 살갓치료제를 사왔다.



(루레이 동굴)



2002년 6월 부모를 모시고 여행

(백악관)

▶ 6월 30일 아버지 경산 대 총장 임기 만료

▶ 8월 - 일본 쓰쿠바 대학에서 1개월간 실험 실습 연구



실습 중 망중한



실습 중 실험실 동료들과

#### 등주의 힘들었던 미국 유학 기억

콜롬비아에서의 첫 학기는 정말 정신없었다고 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수업 따라 가기도 무척 힘들었고 수업 끝나고 나서는 복습을 하지 않으면 그날 수업 한 것을 이해할 수 없었기에 밤을 새야 하는 날이 안그런 날보다 자연스럽게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첫 학기가 지나가자 과 사람들과도 안면이 넓혀지고 아는 교수들도 늘어나니 자연스럽게 적응이 되어갔습니다. 석사시작과 동시에 제가 연구실(Burmister Soil Mechanics Laboratory)에서 제가 맡은 임무는 새로 들여온 자동 삼축 압축기를 테스트하는 일이었습니다. 자동으로 데이터가 컴퓨터에 저장되도록 되어 있지만 일반 컴퓨터에 저희가 직접 라인을 연결하고 각종 게이지를 달고 하다 보니 노이즈가 심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얻지 못했습니다. 처음 라인과 각종 센서들을 다는데 한학기가 지나가고 그래서 한 실험 데이터에서 노이즈가 심하자, 다시 해체해서 조립하기를 몇 번, 그리고 Undrained Test를 하기위한 장치도

달고 Cyclic Test를 위한 장비까지 갖추어서 지금은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석사로 보냈던 1년 반의 시간은 뭔가를 배우겠다는 의지로 불타던 저에게는 너무나도 부족한 정말로 맛 보기만 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별 고민 없이 박사로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석사 때 성적이 비교적 좋았고 교수들과의 관계역시 무난했기에 어렵지 않게 박사 진학의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박사로 진학을 해서 박사들만 들을 수 있는 수업을 듣고 웰리파이 시험 과목에 대해서도 결정을 해야 하고 박사 논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했기에 박사로 있었던 1년의 시간은 석사의 그것 보다 2배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한 학기에 5과목을 듣고 거기에 Teaching Assistant 까지 그래도 박사로 진학을 하자 교수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까지 바뀐 듯 보여 이제는 전문인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콜롬비아에 머무르면서 항상 마음에 걸렸던, 비록 각 분야에서 이름을 날리는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

으셨지만 각 전공에 한분씩 밖에 전임 교수가 없었기에 아무래도 좀더 세분화된 전공으로 나뉘지지 않았고 학생의 관심보다는 교수가 가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콜롬비아에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여기 계신 모든 교수님들의 수업을 다 들어보고 진짜 제 전공을 선택할 욕심으로 제 전공이었던 Geotechnical Engineering 에서 훨씬 확장된 분야까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한계에 도달했으며 지금부터는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논문**을 쓰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2002년 11월 18일 (컴퓨터 입력 일자)

### ▶ 2003년 1월 초 - 동주 내외와 진주를 거쳐 남해안 여행 (남해 보리 암을 날씨로 못 오르고)

아버지는 진주교대 총장 발령을 기다리던 중이었다.

이즈음 성주에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아버지는 네가 마흔이 될 때까지는 너의 뒷

받침을 해 줄 수 있으니까 돈 걱정은 말고 학업에만 전념 하거라. 했더니,

서른이 넘어서도 부모에게서 돈을 받아쓴다는 것이 매우 괴롭습니다. 하더라.

또 이야기 중에는 지난 학기에 배가 아파서 죽을 뻔 했다고 하기에 예사로 들었지만, 혜진이와 함께

서울에 있는 동안 정밀 검사를 받으라 했더니 결과는 담석이 조금 있을 뿐 별다른 이상을 발견 하지 못했단다.

### ▶ 1월 15. 동주 출국 (인천 공항)

손 흔들며 인사 하던 그 모습이 이 세상에서 부모에게 보인 마지막 모습이다.

떠나고 나서 서랍장 위에 아버지에게 리는 듯 놓아 둔 항공기 내의 머리받이 있었다. (이 놈이 아마 이번에는 부모에게 아무런 선물을 못 가져와서 그랬나보다 하고 지금도 고이 잘 간직하고 있다) 아들의 마지막 선물이다.



← 미국에 있는 동안 아버지에게 보내 준 선물들이다.

그 외 생질들을 위한 풀장 셋 등은 사진에 담지 못했다.

- 2월 23, 아버지는 진감 날이랍시고 동생들이 모여 늦은 아침을 먹는데 미국에서 동주가 전화를 했다. 생신 축하 인사와 더불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다면서 - 뉴욕시간으로는 토요일 저녁 6시쯤?

이 말이 동주가 들려준 마지막 음성이다 (아직도 귓전에 울리는데)

아버지는 2월 25일 쯤 취임을 위해 진주로 이사를 할까하고 생각 중이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유도 없이 발령을 내주지 않았다.

28일 오후 4시경(뉴욕 새벽 2시)에야 사망 소식을 들었다

혜진이는 - 아버님! 오빠는 이미 이 세상에 있지 않데요 하고는 먼저 미국으로 떠났다  
(이미 죽은 지 하루 하고도 8시간이나 지났다).

28일 밤 10시 비행기로 뉴욕으로 떠났다. 도착하니 그곳 시간으로 28일 저녁 8시경 이었다.

케네디 공항에는 교육부 차관 시절 장관 수행 비서를 하던 이 의석 사무관이 나와 있었다.

사인은 처음엔 심장마비인 것 같더니 다음날 뉴욕 시립 병원 시체 안치실에 들렸더니 사망진단서에는  
맹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나와 있었다.

### 뉴욕에서 친구들에게 물기를

⇒ 왜 한국으로 알리지 않았는가? - 본인이 알리지 말라고 했다.

⇒ 왜 수술을 하지 않았는가? - 본인이 거절 했다.

모두가 말 못하는 놀의 탓이고, 미국은 개인의 의사가 그리 중요하단다.

이때 (아비 나이 62살, 정아-35살, 동화-34살, 그놈-32살, 세희-27살)

뉴욕에서 운구 준비를 하는 동안 생수와 술만 마시고 내내 울었다.

3월 3일 저녁 10시 40분(뉴욕 시간) 아시아나 비행기로 출발

### 아무래도 석연치 않아!

1). 자신은 이러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없었던 것 같다 - 몸을 좀 씻고 도서관에 가려고  
책가방을 챙겨두고 목욕탕에서 옷을 반쯤 벗은 채 사망했으니까.

2). 맹장염을 발견하지 못한 병원( 맨하튼의 백 내과와 컬럼비아 대 부속 병원)의 책임을 가려 보려고  
49제 중에 며느리를 다시 뉴욕으로 보내 변호사를 선발하는 등 준비를 했으나 **동주가 다시 살아오지  
못할 바에야**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인가 다 포기했다.

▶ 2003년 3월 5 오후 1시쯤에 성주에 도착하자마자 선영에 묻다,

다음 날 자고나니 하늘도 아는지 온 천지가 때늦은 눈으로 하얗게 변해 있더라.

동주 엄마는 그간 얼마나 울었는지 눈두덩이가 퍼렇다 못해 시커멓더구나.

그래도 동주 엄마가 살아 있어 준 것이 나에게서 고마웠다.

성주 집 서재에는 동주의 빈소도 마련되어 있었고, 80이 넘는 동네 어른도 문상을 왔다.

더구나 먼저 가는 사람이 어른이라면...



연구실 모습



증명사진



연구실의 책장



박사 학위증



성주에서 동주가 잠들어 있는 모습